

선교의 강이 흐른다

“광야에 꽃이 피기까지”

나바호 인디언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한명수 선교사

2005년 선교사 파송을 받아 미국으로 간 한명수 선교사.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 주었으며 선진국인 미국에 선교를 간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러나 그가 간 곳은 미국 속의 오지라 할 수 있는 인디언 부족 지역이다. 그가 묵묵히 부르심의 자리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이면 어디든 가겠다는 그간의 신앙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선교지는 미국 내 630여 개의 인디언 부족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나바호로, 이른 바 인디언 보호구역이다. 실상은 보호라기보다 ‘제한’이나 다름없는 그곳에서 정체성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외로워하는 인디언들에게 친구로, 가족으로 다가선 한명수 선교사.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그곳에 복음의 생명나무가 심겨지고 다음세대를 통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꿈을 품고 있다. 그것이 그의 선교사명의 지점이라고 말하는 한명수 선교사를 만났다. _편집자 주

갑작스런 부르심, 그가 있던 자리

한명수 선교사는 목회자 자녀로 집 문턱이 교회 문턱이나 다름없었다. 그럼에도 서른셋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했다고 고백한다. 더욱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꿈꾸었던 적은 한 번도 없는데, 학창시절 교회에서 막말을 하며 싸우던 성도들을 보며 ‘이것이 교회라면 목회자가 되지 말아야 겠다’고 다짐했다. 담임목회자인 아버지 체면을 위해 주일예배에 출석은 하지만 ‘딱 거기까지’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서른넷에 하나님을 만나며 모든 것이 바뀌었다.

“당시 저는 전문건설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매달 천만 원 이상 십일조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부흥회에 한 번 참석하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송내중앙교회 김종선 목사님의 부흥회였는데, 참석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한 표적 없이 믿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부흥회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이후로도 한명수 선교사는 여러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 신학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쳤을 때 그의 나이 만 서른여섯. 1년 동안 시골에서 담임 전도사로 목회를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지로 가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그가 회심을 하지 않았을 때부터 하나님의 준비는 시작되고 있었다고 그는 고백한다. 대표적인 것이 그의 군 경험이다. 그는 청와대 경호 임무로

대통령의 동선을 지키는 저격수로 군 생활 3년을 마쳤다. 그때 배운 경호무술과 태권도가 인디언 선교에서 요긴하게 쓰임받고 있다.

그는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 3년간 목회를 경험하였으며, 선교훈련과 전도폭발, 사영리 세미나 등 지도자 과정과 관련된 많은 훈련을 받았다. 이 짧은 기간 동안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어디든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는 신앙의 고백이었다. 이런 준비가 있었기에 갑작스런 부르심에도 반응할 수 있었다.

미국 인디언 나바호족에 대한 한국의 선교는 1995년 고 장두훈 선교사로부터 시작되었다. 장두훈 선교사는 7년간 선교사역을 이어오다 순교했다. LA한인타운에서 지원해 준 물건들을 가득 싣고 돌아오던 길에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사용했던 재생타이어가 터지면서 사고가 났던 것이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선교 현장의 모습이 아닐 수 없었다. 인디언 선교의 맥이 끊긴 상황, 그래서 느닷없이 감리교 선교국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된 것이 한명수 선교사였다. “사실 저는 미국 인디언 선교가 어떤 사역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번역된 인디언 서적들을 읽어 보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인디언 선교를 위해서는 선교지 어디든 마찬가지이지만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제 선교지는 인디언 보호구역이었는데, 그곳은 살기 척박한 땅, 나무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와 같은 사막이었습니다.”

사막에 꽃이 필 때

(Navajo Indian Reservation)에 있다. 보호구역은 건조한 황무지(광야와 같은 사막)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인디언의 후손들은 이 땅을 ‘나바호 국(Navajo Nation)’이라 부르며 자신들은 나바호 인이라기보다는 “Dine(The People, 사람들)”라고 부른다. 나바호(Navajo)라는 단어는 “넓은 재배한 들”을 뜻한다. 이 보호구역의 넓이는 웨스트버지니아(West Virginia)의 크기이고, 370,000 명의 나바호 인이 살고 있다. 젊은 세대는 대개 영어를 사용하지만, 어른 세대는 고유 언어인 ‘나바호어’를 쓰기도 한다. 그들의 수도는 애리조나의 Window Rock이다. 애리조나 주 정부와는 달리 summer time을 쓰고 있다.

한명수 선교사의 사역지는 미국 애리조나 동북쪽 나바호 인디언 보호구역이다.

나바호 부족은 미국 내 인디언 630여 부족 가운데 가장 큰 부족으로 인디언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인디언 인구 340만 명 중에 40만 명이 나바호 부족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인디언 보호구역은 남한 정도의 크기로 대부분의 땅이 건조한 황무지이다. 나바호 부족은 토지를 사용하지만 소유하지는 않는다. 이런 나바호 부족에 대한 미국의 보호구역 정책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보호구역이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제한구역으로 이 구역 내에 살면 여러 혜택들이 있지만 그곳을 벗어나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제도가 인디언들을 미국 사회에 진출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디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손재주가 좋습니다. 은세공품이 판매가 주수입원일 정도로 정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디언들의 최대 단점은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디언들은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며 엄청 부지런했습니다. 이들이 게을러진 이유 중 하나가 보호구역 내에서 미국이 제공해 주는 여러 가지 혜택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 그들의 자율적이고 역동적인 삶을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보호구역 내에서의 실업률이 높고 가난하다. 알코올중독자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도박에 노출되고 있다.

한명수 선교사는 인디언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디언 부족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미 미국의 자산가들이 세워놓은 예배당이 있고 학교가 있고 또 보호구역 내의 인디언 부족은 의료 혜택도 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학교도, 병원도 지을 필요가 없었다.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증거의 핵심은 ‘화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인디언들이 미국인들과 동일한 인간의 권리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인디언 문화의 특수성을 존중 받는 가운데, 인디언들로 하여금 미국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미국과 구별된 한 개체로서의 인디언들이 아니라 하나 됨을 통해 미국사회에 공헌하고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디언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미국사회의 인식 또한 개선되어야 합니다.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입니다. 인디언 문화를 말살시키려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한명수 선교사는 인디언 마을 사람들이 ‘야떼 쉬야지’(사랑하는 내 아들 잘 지내니?)라고 인사할 정도로 13년째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다. 인디언 부모들은 맛별이를 하거나 술에 취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보니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기 일쑤다. 이 아이들에게서 희망을 본 한명수 선교사는 아이들을 위한 선교센터를 짓고 방과후 지도를 하고 있다. 미국사회에 공헌하는 아이들로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공부와 더불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가장 본이 되는 것은 역시 선교사의 삶이다. 한명수 선교사의 자녀들은 주일마다 교회 봉사를 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들 속에 인디언 아이들에게 본이 되었다. 인디언 아이들과 함께 공부한 자녀들이 모두 미국 본토의 명문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서 인디언 아이들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사막에 꽃이 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인디언 보호구역이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정말 이 아이들에게 생명나무가 심겨지고 아이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제 선교의 목표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할 선교센터

처음 미국 인디언 선교를 향해 갈 때,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고 장두훈 선교사의 선교일기가 전부였다. 그는 파송교회가 없었고 개인적으로 후원자를 연결해서 선교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30개 교회에서 매달 10만원씩 지원을 받기로 한 것이다. 이것이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며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금은 3분의 1로 줄었다. 한 선교사의 아내가 주당 40시간씩 일을 하고 있으며, 그는 선교사역을 위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부족한 선교비를 충당해간다.

“선교 사역의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재정입니다. 올해에만 4교회에서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새롭게 선교를 지원해 줄 교회를 찾아 지원 요청을 하는 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해서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 부분을 허물어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바호 인디언 부족을 향한 한명수 선교사의 선교도 마찬가지다. 인디언 부족의 자립을 위해 새마을 운동을 펼치고 싶다고 말한다. 새마을 운동의 3대 정신은 근면, 자주, 협동인데, 술이나 마약에 찌들어 게으른 인디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나무들이 많으면 더 많은 나무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단기선교팀들과 함께 나무를 심는다고 한다. 마른 광야, 사막에 나무 한 그루를 심는 선교는 한명수 선교사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

척박한 땅에 들어가 선교사로서 인디언들과 함께하며 자신의 삶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무성한 숲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선교 지원과 동역이 필요하다고 한 선교사는 강조한다.

“우선 선교사들에게 직업교육이 필요합니다. 바울도 천막을 짓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 한 권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교단에서 파송을 하기 전에 선교사 직업교육을 시킬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리 학벌이 좋더라도 두 번째 직업으로 보석세공 기술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전쟁 등으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할 때 보석세공으로 생계를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동적인 선교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직업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선교사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은퇴 이후 대책이 있는 선교사는 전체 선교사의 5%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더불어 선교사와 연결된 교회의 지원이 중도에 끊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함께 지어져 가다 끊어지면 선교는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생명체로 여기고 끝까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선교지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을 때, 한국교회는 심사숙고하여 동역자를 보내 줄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나바호 인디언은 비전을 상실한 채 술과 약물 등에 빠져들고 있고, 주변에 카지노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지요. 이로 인해 깨어진 가정, 청소년 문제까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나바호 미션센터와 꿈의 목장을 통해 나바호 인디언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며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역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된 나바호 인디언들의 입을 통해 37만 나바호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곳에서 13년간 인디언들과 함께 양을 키웠습니다. 3마리를 사서 시작했는데 작년 말에 150마리를 팔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1만 불 정도를 모았는데, 이 재정을 토대로 선교센터 설비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미국의 한인교회들의 지원으로 선교센터를 짓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전기와 수도가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나바호족 정부가 나서서 해 주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니 자구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에너지로 전기 설비를 마련하고 우물 펌핑으로 수도 시설을 대체할 생각입니다. 아직도 재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요.”

광야학교에서 13년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말하는 한명수 선교사. 이곳에서 가장 힘든 것은 광야라는 장소가 주는 외로움이지만 또한 광야이기 때문에 좋은 점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인디언 보호구역이라는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한명수 선교사는 메마른 광야를 바라보면서도 훗날 피게 될 복음의 열매, 또 하나님이 피워주실 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나바호 미션센터(Navajo Mission Center)를 통해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주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며, 어른들이 꿈을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변화된 나바호 인디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현재 기독교가 1%밖에 되지 않는 나바호 인디언들에게 복음이 증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명수 선교사 연락 이메일 saphan2@hotmail.com>